

사회

해열·진통제 오남용 부작용 속출

여고생 등 다이어트·스트레스 해소 과다 복용 심각

대량 구입 쉬워... 수습할 먹고 병원행도

해열·진통제를 치료약이 아닌 다이어트나 극단적인 선택을 위한 목적으로 오남용하는 청소년들과 젊은 여성들이 늘면서 부작용이 속출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들 해열·진통제는 별도 의사 처방이 필요없는 데다 대부분 10알 포장 단위로 판매하고 있어 대량 구입이 쉬운 탓에 남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당 판매 개수를 제한하거나 다량 구입시 의사 처방을 받도록 하는 등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광주지역 각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에 따르면 해열·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례가 매달 1~2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들 환자의 절반 이상은 여고생이며, 나머지는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이다.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수습 알을 한꺼번에 먹는 경우가 있으며, 상당수는 수능이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복용하거나 다이어트를 위해 오용하는 사례도 있는 실정이다.

특히 초년부터 청소년들 사이에 큰

거센 '게보린 다이어트' 소문이 퍼지면서 10대들의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게보린 8알 먹으면 2kg 빠진다'거나 '게보린을 5알씩 며칠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헛소문 때문에 과다 복용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

게보린이나 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회 1알을 복용하되, 하루 3회 정도로 용량을 규정하고 있다.

A(여·30)씨는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타이레놀을 포함한 진통제 40여 알을 한꺼번에 먹었다가 대학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수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B(여·20)씨는 게보린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루머를 믿고 10여

알을 먹었다가 심한 어지러움과 구토에 시달려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다. 여고생 C(여·17)양은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못 이겨 게보린 10알을 먹었으며, D(여·16)양은 10알을 먹고 난 후 가슴부위 통증에 시달리다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조선대병원 박용진 응급의학과 교수는 "타이레놀이나 게보린 등 진통제를 과다복용시 간세포 손상과 오심, 구토 등은 물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면서 "약품 표본이나 설명서에 진통제 과다복용은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문구와 다이어트 효과가 없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조폭이 윗놀이 도박판

노인·조문객 상대 수수료 뜯어

광주동부경찰은 2일 노인과 조문객 등을 상대로 윗놀이 도박판을 열고 관돈을 뜯어낸 혐의(도박 개장 등)로 신모(41)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씨는 광주 C구역조직 행동대원으로 경찰의 관리대상에 올랐으며 다른 1명은 추종세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광주전남 다리 밑과 광주시 동구 학동 모 장례식장 등지에서 윗놀이 도박판을 개장해 수수료 명목으로 관돈의 10% 가량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돈을 잃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이모(59)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문도박판

에서 노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이르기까지 타치는 대로 도박판에 끌어들여 하루 평균 100만~15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속을 대비해 망을 보는 속칭 '문방'과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공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전문적으로 윗놀이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신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수익 규모도 볼 때 관돈의 규모가 수천만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자들을 추가로 확보해 여죄와 부당이익 액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원침 (8430) 김종두



“왜 선배보고 인사 안해”

후배폭행 조폭 2명 조사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평소 조직선배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후배를 상습 폭행한 광주 신서방과 조직폭력배 양모(30)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서방과 행동대원인 양씨 등은 조직후배인 피해자 조모(28)씨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지난 7월28일 새벽 북구 중흥동의 셀프

세차장 내에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얼굴을 구타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폭행을 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설득해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원통에 은신하고 있는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조직이 세 규합을 위해 조직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뒷선의 지시를 받고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DNA 검사로 성폭행 밝혀져

해남경찰은 2일 주택에 침입해 부녀자를 강간한 A(36)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8월 광주시 광산구 B씨(30)의 집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절도 혐의로 붙잡은 A씨의 DNA를 채취해 5년 전 성폭행 사실을 밝혀냈다.

/서부취재본부 박희성기자 dia@

남치 의심 신고 알고보니 부부싸움

○남치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으나 2시간여만에 부부싸움으로 밝혀지는 해프닝.

○2일 광주관산경찰에 따르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여성이 지난 1일 오후 6시47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과학기술원 앞 도로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자 여성이 남성의 팔을 물어뜯는 등 남치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했다는 것.

○경찰은 차량 소유자 본적지와 공조수사를 한 결과 물어 아픈 시아 버지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던 부부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판명.

/김경민기자 kki@

업주 살해 휘두른 흥기에 내연녀 참변

서부경찰, 50대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2일 흥기로 내연녀를 살해한 택시기사 정모(50)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일 밤 11시25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포장마차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내연녀 이모(여·45)씨를 흥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술에 취한 정씨는 포장마차 업주 A씨가 평소 내연녀 이씨

를 무시하며 함부로 대하던 것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흥기로 A씨를 살해하려다가 자신을 말리던 이씨에게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범행 직후 흥기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30여분 뒤 포장마차로 돌아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정씨는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근육질 몸매 자랑

2일 광주시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열린 '제2회 빛고을 시니어모델 선발대회'에 참가한 노인들이 그동안 단련한 근육질의 몸매를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주택가까지 파고 든 유사 성행위업소

원룸 빌려 운영 업주·여종업원 등 5명 검거

단속을 피해 원룸촌에서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해온 업주와 여종업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2일 원룸을 빌려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업주 정모(41)씨와 종업원 최모(여·20)씨 등 5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정씨는 지난달 12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T원룸 3개를 임대한 뒤 속칭 '대밭방'으로 불리는 유사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최씨 등 20~30대 여성 5명을 고용해 지난 20일부터 1일까지 46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남성 1명당 7

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했으며, 수익을 50%씩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원룸을 빌려 업소를 차렸고, 철저하게 예약한 손님들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관 2명을 술에 취한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잠입시킨 뒤 여종업원들을 설득해 유사 성행위 사실을 자백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기자 kki@

오현섭 도피 도운 3명 징역·벌금형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민섭 판사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쫓기던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도피를 도왔다가 범인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와 또 다른 김모(60)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송모(60)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는 않았고 일부는 오 전 시장의 자살을 막기 위해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인의 소개 또는 중학교 학원 등으로 오 전 시장을 알게 된 이들은 지난해 6월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집에서 오 전 시장을 머물게 하거나 승용차에 태워 서울, 부산, 강원 등으로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이 기간 서울의 생활과 강원 속초시 콘도, 부산의 여관 등을 돌아다녔으며 검문에 대비해 송씨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서구 352-7788
(062)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목포 274-5987
(061)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차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454-7722

슬로우시티 담양!!

한옥(예정)마을 조합원 추가모집

금번 전남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일대에 한옥(예정)마을을 조성코자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향후 지정예정이며, 경질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면적 32.195㎡(구, 9.739형) 대지에 31세대 분양
- 고서-대덕간 도로확장공사 예정, 개통시 광주-대덕간 9분 소요
- 순천 및 서 울빙향 진출용이(청평 IC)
- 버스노선 518, 303번 운행 말비우시장 20분내 도착가능
- 조합원 기금비 200만원 납부
- 태양광 및 지열을 이용한 전력공급 시스템설치 (세대당 설치비 부담 있음)
- 제1기금용 3,000만원(연리 2%까지 대출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향후 한옥(예정)마을을 민박으로 지정 예정이며 청평 슬로시티 및 담양 인근 관광지 숙박 유치 (메타세콰이아길, 죽녹원, 관방제일, 소쇄원, 식영정 등 주변 관광지 다수로 전원생활과 소득창출 가능)

한옥 행복마을 현장

대덕면사무소

광주 우재국

조합원 가입문의 010-7210-6118 · 010-4025-2340 · 010-4025-6911 · 062-265-3125
현장위치 : 전남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212번지 일원